

자연과 공생,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앞장서는 기업



주식회사 **봉견**

회원사
코너

1

River & Culture

1. 봉견과 우포늪의 인연



안영조 대표이사

태풍 매미가 영남지방을 강타했던 지난 2003년 9월 11일,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자연늪지 우포늪도 예외는 아니었다.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이 범람해 대대제방이 무너지면서 우포늪 인근의 효정리, 대대리, 관동리 등 3개 마을 농경지 170ha가 침수되고 가옥 71채가 물에 잠겼다. 청산제 등 4개 제방을 범람한 물이 덮친 대지면도 농경지 200여ha가 잠기고 82가구가 침수됐다.



www.bongkyeon.co.kr

고이 자연의 모습을 지켜오던 우포늪도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렸다. 우포늪은 1억4000만년 전 만들어진 자연 늪지. 낙동강의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자리 잡고 담수면적이 2.3㎢, 가로 2.5km, 세로 1.6km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997년 7월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98년 국제 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된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태풍이 지나간 뒤 대대적인 우포늪 복원공사가 시작됐다. 제방 보수가 시작되자 제방 보수방법을 놓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자체가 문제였다. 주민들은 튼튼한 독을 원했고 환경단체들은 콘크리트가 아닌 돌로 쌓은 제방을 고집했다. 여러 자재를 놓고 격론 끝에 독 일부는 주민들 뜻대로 식생친환경 블록으로 공사를 했다.

공사를 마친 뒤 두 달도 채 안되어 돌 제방을 고집하던 환경단체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주민들의 뜻대로 식생 친환경 블록으로 공사한 구간이 돌을 쌓은 공간보다 훨씬 생태회복이 빨랐던 것이다. 그때부터 친환경 식생블록을 생산한 안영조 (주)봉견 대표에게 ‘우포늪을 살린 사람’이라는 영예로운 별명이 붙었고, 제품이름도 우포식생 호안블록으로 바뀌었다.

제10차 람사르총회는 약 165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얻었다. 관심의 중심은 국내 최대 습지인 우포늪, 하지만 이러한 우포늪도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주식회사 봉견의 제품이 시공된 후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 이제 주식회사 봉견의 제품은 우포늪의 일부가 되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2011년 5월 우포늪을 찾은 일본 물 포럼 기술고문이자 이번 대구에서 열린 한국수자원학회 세미나에서 열린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한국의 수자원 활용에 기여한 세계적 수자원생태 개선 및 복원전문가인 이토 카즈마사 박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기 전 모습으로 완벽히 복원된 우포늪에 감탄하였다. 이토박사는 시공된 곳이 3km나 되지만 제품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복원된 우포늪을 보면서 우포식생 호안블록을 세계적 무대로 발돋움 하는데 돕겠다고 하였다.

우포늪 생명길 탐방견기대회 중의 하나의 코스인 자사의 제품이 들어간 대대제방, 우포늪 생명길 탐방견기대회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upo.or.kr>).

2. 회사개요

자연이 준 선물 지키고 복원한다는 생각 하나로 연구

“자연은 늘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있으나 인간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영조 (주)봉견 대표는 늘 자연과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자연은 선조들로부터 상속을 받은 유일한 재산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이라는 생각 아래, 항상 인간에게 베풀기만 했던 자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생태환경 보존 및 복원사업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우포식생 호안블록’을 개발했고, 이는 각종 재해에 의해 훼손되는 자연을 보호하고, 이미 훼손된 자연을 복원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자연환경과 인명,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포식생 호안블록 및 우포식생 견치블록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며 “재해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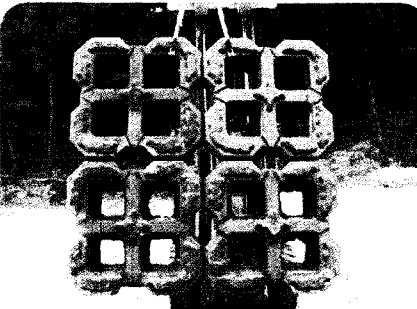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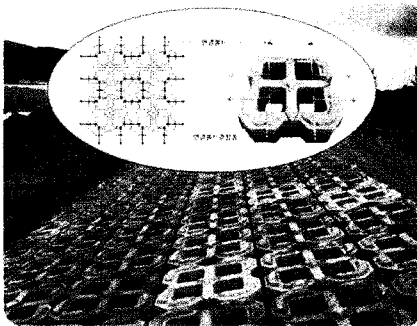
(주)봉견은 자연생태보존을 위해 옹벽 및 사면녹화, 생태하천복원기술 등과 관련 계획 및 설계, 시공은 물론이며 하천정비 관련 소재에 대해 다량의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경·토목·생물·환경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걸어온길

1990. 이방블록 설립

- 2001.02.03. 주식회사 봉견 설립
- 2003.09.09. 우포식생 호안블록 개발 및 생산
- 2004.08.25. GQ(중소기업 우수제품) 표시인증
- 2004.12.31. 창녕 TOP 10대 기업선정
- 2005.01.03. 우포식생 견치블록 개발 및 생산
- 2005.10.05. 국무총리 표창(환경부 주관)
- 2005.10.25. ISO 14001 2004 인증
- 2006.07.24. 단체표준표시인증
(한국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연합회)
- 2006.09.04. 우수단체표준표시인증
(한국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연합회)
- 2006.11.09. 2006 대한민국 ESH가치 경영대상 조달청장 대상 수상
- 2008.07.15. 한국토지공사 가용신기술 인정
- 2009.03.25. 유망중소기업 선정(경남은행)
- 2009.03.26. 환경표지인증(친환경상품진흥원)
- 2011.03.28.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 2011.06.10. Q마크 인증(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공실적



- ① 우포늪 대대제방
- ② 가평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장 조성공사
- ③ 태화강 남천교 일원 수해복구공사
- ④ 낙동강 배수문
- ⑤ 은평뉴타운 1지구 창릉천 정비 및 군대체시설공사
- ⑥ 동요산토끼공원 조성공사 외 500여곳

3. 기술력&노하우

3.1 우포식생 호안블록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제품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우포늪에 시공되었던 우포식생 호안블록은 일반블록에 흔히 사용하는 2차원 형식의 철근이 아니라 3차원 형식의 철근이 인입되어 제품자체의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제품의 4개면 각 2개씩 총 8개의 몸체관통 연결홈에 아연도금한 연결볼트를 이용한 결합은 8년간 우포늪에 찾아온 자연재해에서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결합되어있다. 견고하게 결합된 블록들은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 하천 및 도로의 법면, 하상 등에 시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법면을 보호하고 하상의 세굴을 방지한다. 3차원 형식의 철근으로 견고함을 더하였고, 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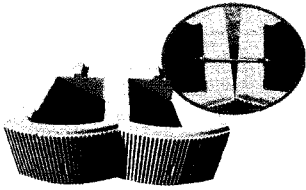
우포늪 대대제방의 시공 중인 장면



우포늪 대대제방의 시공 후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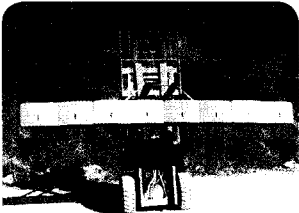
록간의 볼트 체결로 안정성을 높였다. 제품의 몸체를 관통하는 식생공간은 복토시 85%의 식생면적을 제공하여, 시공 후 시공된 곳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 환경성까지 뛰어나다.

3.2 우포식생 견치블록



자연은 늘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있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 환경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지키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주)봉건의 철학이 보이는 우포식생 견치블록은 식생면적이 존재하여 식물의 성장을 유도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이것 또한 우포식생 호안블록과 마찬가지로 3차원 형태의 철근이 인입되며, 좌우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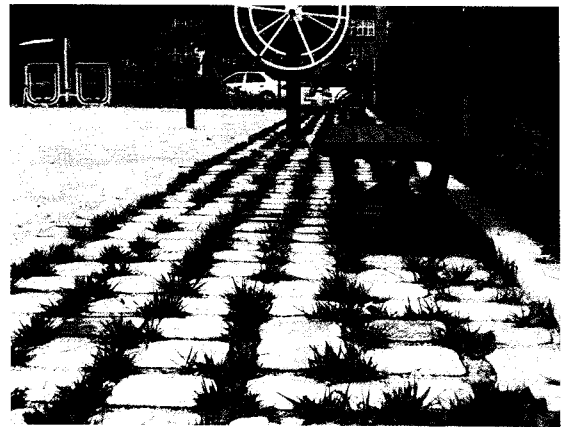
홈을 두고 볼트를 결합하여 안정성을 극대화 하였다. 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의 길이의 차를 두어 곡면시공에 용이하다. 제품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걸림 턱을 두어 시공 후, 후사면의 토압이나 수압으로부터 전도방지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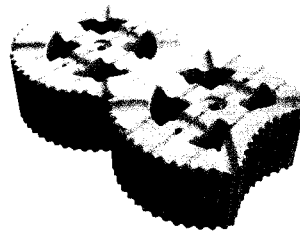
3.3 우포호박돌형 잔디블록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공장, 건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익스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우포호박돌형 잔디블록은 12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장 시공시 별도 제조된 라

인블록을 이용하여 시공하므로 라인작업이 필요치 않다. 이 블록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라서 시공성도 뛰어나다.



3.4 우포보강토 옹벽블록



우포보강토 옹벽블록은 외부에 구성된 기어식(오목 홈부와 고정돌기)의 형태를 이용하여 어떠한 각도(심한 곡선의 범

면)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와셔 및 너트를 일체화한 앵커식 볼트와 양면볼트를 이용하여 상하블록을 연결 일체화 시키므로 시공 후 전체 시공물이 일체화 되는 효과가 있어 다른 블록에 비하여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다.

4. 자연과 공생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이다. 예전 공업의 기술적 기초로서 도구에서 기계가 발명되고, 도구에서 기계로의 변혁을 위하여 종래의 매뉴팩처가 대규모적인 공장제 공업으로 대치되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선진국들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배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났고, 지역의 이름을 딴 환경오염의 사례들은 대표적인 환경오염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한번 오염된 자연은 쉽게 복원되지 않고, 그 영향은 곧 인간에게 미친다.

현재 세계의 방향은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경제성장의

족쇄가 되었던 환경은 경제성장의 날개가 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하여 수해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복합공간 확보, 지역발전 등 많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주식회사 봉견은 태풍 매미로부터 국내 최대습지인 우포늪제방을 복원한 바 있으며 환경복원성, 안정성 등이 입증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녕군은 경상남도 하천제방 정비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4대강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세계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R&D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친환경 상품을 개발 중이다. 🌱